

<괴담레스토랑> 시나리오

S#1. 괴담 레스토랑-로비/밤

괴담 레스토랑.

어린 지배인 가르송이 정중하게 허리 숙여 인사한다.

가르송

괴담레스토랑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곳의 지배인 가르송이라고 합니다.

어울리거나 말거나 이름이 가르송입니다.

우리 레스토랑은 등골이 오싹해지고 식은땀이 나는 손님 맞춤형 특별 요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님은...

가르송이 주인공을 향해 다가온다. 그리고는 눈으로 위부터 아래까지 스캔한다.
스캔이 마쳤는지, 원래 적정거리로 돌아가 다시 안내를 시작한다.

가르송

그럼 손님께 딱 적합한, 오늘의 메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INSERT. 메뉴판

(효과음: 침략— 메뉴판 펼치는 소리)

가르송

전체로는 죽어도 먹어보고 싶다면 귀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꿈의 조각’.

메인은 유령이 된 직장인들이 피를 뚝뚝 흘리며 권하는 사골육 ‘피땀눈물’.

어린 외눈박이 주방장이 나타난다.

가르송

디저트는 무심결에 몸을 떨게 되는 악마풍 샤べ트. ‘여명’이 되겠습니다.

재료를 젓다가 눈물 하나를 가르송 앞에 떨어뜨린다.

가르송

(당황하며) 아... 하하하하!

가르송은 주방장이 떨어트린 눈물을 주워
뒤로 안보이게 숨긴다.

가르송

또한 우리 레스토랑은 특별히 오리지널 향신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무서운 이야기는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가 있답니다.

가르송이 레스토랑 내부로 들어가는 문앞으로 이동한다.

가르송 그럼 여러분, 즐겨보실까요?

S#2. 괴담 레스토랑-홀/밤

푸른빛 조명이 감도는 기묘한 레스토랑이 펼쳐진다.
고급스러운 앤티크 식탁과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으나,
그 사이로 카메라 레일이 깔려 있고,
조명 스탠드들은 촛대처럼 줄지어 서 있다.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
며칠 밤을 세운 듯 영훈이 빠져나간 창백한 얼굴들이다.
복장에 여러 도구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을 보아
영화 스태프들로 보인다.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

방금 전, 뒤처리가 예사롭지 않던 외눈박이 주방장이 음식을 불안정하게 들고 나오는 게 보인다.
이를 발견한 가르송이 홀로 들어서는 입구에서 그를 가로 막고
음식들을 빼앗는다.
그리고는 눈짓으로 핀박을 준다.
외눈박이 주방장은 잔뜩 풀이 죽은 체 주방으로 가르송의 뒤에 선다.
가르송은 목을 가다듬고 사뿐사뿐, 침착하게 손님들이 있는곳으로 다가간다.

가르송이 오늘의 메뉴를 내려 놓는다.

가르송 오늘의 메뉴입니다.

가르송이 식탁에 메뉴를 놓는대로
각 테이블의 유령들이 음식에 달려들어
황홀함을 느낀다.

곧이어 주인공에게도 음식이 높인다.

‘꿈의 조각’은 영화 포스터가 스테이크 형태로,
‘피땀눈물’은 피에 눈물과 땀 조각이 담긴 형태로.
‘여명’은 그동안 상사에게 들었던

수모의 말과 동기에게 들으 칭찬의 말들이 뒤죽박죽 섞인파스타다.

외눈박이 주방장은 이제 못참겠다는 듯
손님 앞에서 또 나대기 시작한다.

주방장

오직 여기 있는 손님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아마 그동안의 무시무시한 현실과
날카롭게 찢긴 꿈들이 무섭지 않게 될거예요
특히 메인인 꿈의 조각에는 손님이 어렸을때부터 꾸던 꿈의 열의 파우더를 위에
흘뿌였구요 그다음 메인은 …

이때 가르송인 주방장의 입을 막는다.

가르송

네 손님. 저희 주방장이 이렇게 열정이 지나치답니다. 언제쯤 식으련지…
그럼 편안한 식사 되십시오.

가르송이 주방장으로 끌고 다시 로비로 들어간다.

하지만, 모든 상관 없다는 듯 레스토랑 안 손님들은
음식을 집어 들고 탐식하기 시작한다.
씹고, 뜯고, 삼킨다.
그들이 삼키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자신의 꿈이다.

손님들의 말소리가 들린다.

손님 1

맞아, 내가 이 맛에 이 일을 시작한거지

손님 2

맛있어 맛있다.

만찬이 절정에 달한다.

그 순간,

감독

컷어어엇!!!! 야, NG! NG!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어두웠던 푸른 공간에 불이 켜진다.
동시에 화려한 식탁, 의자, 가르송, 그리고 요리들이 모두 사라진다.

쿠당탕!

의지할 곳이 사라진 스태프들이 공중에 뜯 채 당황하다가 차가운 바닥으로 일제히
나동그라진다.

현장은 다시 살풍경한 촬영장으로 돌아온다.

다시 한번 메가폰으로 감독의 외침을 들린다.

감독

야 막내들 단체로 영혼 가출했어?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바닥에 처박힌 스태프들. 어느새 그들의 얼굴에서 귀신 분장은 온데간데 없다. 입에 묻은
가상의 소스를 닦아낼 새도 없이 스태프들은 비틀비틀 일어나 각자 조명, 카메라 자리로
흩어진다.